사회연구 통권18호(2009년 2호), pp. 143~174

농어촌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김광수

이 연구는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북 내의 군 단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들을 규명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되어온 연구대상의 외연을 확대하여 이 분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생태체계를 개인체계, 가족체계, 학교체계, 지역사회체계, 인터넷 환경체계로 세분화하여, 각 체계에 해당하는 하위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조사대상인 농어촌 청소년 중에서 인터넷 중독장애자와 중독성향자를 합한 비율은 40.6%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 중 인구학적 변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았으며, 개인심리적 변인들 가운데에는 자기존중감, 자기통제력, 사회성 효능감 변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인터넷 환경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에서는 인터넷 가용성과 사용시간 변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넷째, 가족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 중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변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 가운데서는 학업성적 변인만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역사회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 중에서는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생태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34%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의 하위 체계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종속변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하위체계는 개인체계였다. 그리고 앞선 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만을 추출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생태체계에 속하는 전체 독립변인들 중에서 인터넷 사용시간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가장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인터넷 중독, 생태체계 변인, 농어촌 청소년

김광수 대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사회학). kaskym@gmail.com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터넷은 이제 인간에게 불가피한 실용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는 폐해의 주범으로서 야누스적 매체가 되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오락을 즐기면서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는 일상의 편의성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다양한 역기능들을 함께 목격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된 한국사회에서,[1] 인터넷과의 접촉을 유년기부터 경험한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인터넷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주이다. 현재 청소년들은 어느 연령대보다도 높은 99.9%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면서 인터넷 중독이라는 역기능에 노출되어 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국내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초창기의 연구는 '통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행해진 1997년 양소남의 연구와 1999년 강지선의 연구, 그리고 김세영의 연구가 있으며, 같은 시기에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송원영의 연구와 윤재희의 연구 등이 이 분야의 연구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 후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분야의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어,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양돈규, 2000; 천정웅, 2000; 양돈규・조남근, 2001; 김진희・김경신, 2003; 최은정・김형모, 2006; 김태현, 2007; 서경환, 2007; 오창규・김진희, 2009)를 비롯하여, 인터넷 중독척도 개발과 관련된 연구(이시형 외, 2000; 강만철·오익수, 2002; 이형초・안창일, 2002; 김은정 외, 2003; 이경옥 외, 2006),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결과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그런데 현재까지 청소년과 관련된 인터넷 사용이나 중독에 관한 연구들은 대도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중소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의 연구(청소년폭력예방

1) 1994년 6월 한국통신이 'kornet'이라는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인터넷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재단 전남지부・여수소라종합사회복지관, 2002; 조은영, 2005; 전영자・서문영, 2006)들이 있었을 뿐이며, 그나마 농어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석봉의 연구(2005) 이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편향성은 연구결과의 경험적 일반화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북 내의 군 단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조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들을 규명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되어온 연구대상의 외연을 확대하여 이 분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적 관점과 관련 독립변인들

1)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적 관점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은 1996년 골드버그(Goldberg)가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여, 그 후 영(Young)이 1996년 미국정신과학회에서 "인터넷 중독: 새로운 임상장애의 출현"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었으며, 인터넷 보급과 그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과 함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중독을 초래하는 원인에 관심을 가졌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터넷 매체 자체의 속성에 연유하는 변인에 주목하거나, 인터넷 사용자와 그를 둘러싼 환경에 귀속된 변인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왔다. 먼저, 인터넷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연유하는 원인으로는 익명성이 주는 효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만족, 개방성으로 인한 정보접근 제약성의 극복 등을 들 수 있다. 이 속성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성취하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적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에 탐닉하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독을 야기할 수 있는 인터넷 자체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모두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즉 인터넷 자체의 중독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별 사용자에게 귀속된 특성들과 그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특성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중독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짓는 복합적인 변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인터넷 매체 자체의 속성보다는 농어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차이를 가져오는 복합적 변인들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틀 속에서 인간의 행동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결정되어 간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그 원인이 되는 변인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개인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호 간의 교류과정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거나 변화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생태체계적 관점은 한 개인이 가지는 행동 경향성의 복합적 원인을 밝히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 관점은 다양한 인간 행동의 경향성을 설명하는 기존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것이어서 다른 이론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분석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의 이면에는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체계 수준이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 그 결과에 대한 실증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면,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9)는 유기체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체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나누고 있어 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관찰한 반면에, 버클리(Buckley, 1967)는 체계의 조직적 속성인 전체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와 문화체계로 나누어, 각각의 체계들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도 하면서, 전체로서의 생태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환경이 가족

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둘러싼 생태체계를 개인체계, 인터넷 환경체계, 가족체계, 학교체계, 지역사회체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체계에 해당하는 하위 독립변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2)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독립변인들

가. 개인체계의 독립변인

개인들은 동일한 환경의 자극에 처해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행동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환경 속의 개인'의 구조 속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생태체계 속에서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 역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심리적, 정서적, 지적 발달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행동은 그 청소년 자신에게 귀속된 개인적 특성만으로도 타인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개인체계의 하위 독립변인을 인구학적 변인과 개인심리적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가) 인구학적 변인

① 성별

선행연구 결과들의 대부분은,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에 따라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향성은 남성의 경우가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양소남, 1997; 류진아 · 김광웅, 2004; 조은영, 2005; 전영자·서문영, 2006),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보인다는 예외적인 연구 결과(김형준 외, 2002)도 찾아볼 수 있다.

② 연령(학년급)

연령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의 차이를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예외없이 10대의 중독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이 연령대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을 학년급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나) 개인심리적 변인

① 자기통제력

로그(Logue, 1995)는 선택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자기통제력을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충동성'을 이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제시했다. 즉 자기통제의 실패는 충동조절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은 기본적으로 충동조절의 문제이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욕구충족을 위해 기다리지 못하고 가상공간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상공간에 집착하면서 이에 중독적 행동을 보이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송원영(1999)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 자기통제력 변인을 지목하였다. 이 밖에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 연구(이계원, 2001; 류진아·김광웅, 2004; 이지항, 2005; 조은영, 2005; 전영자·서문영, 2006; 이숙진, 2007)들은 공통적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질수록 인터넷 사용에서 중독적인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생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 또는 부정의 태도로 표현되고 자신이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보는 정도"(Coopersmith, 1967)로 정의된다. 현실에서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도피하여 실제적 자신을 숨기고 가상적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터넷은 중독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형성의 중요한 발달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정도가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영(Young, 1998)은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보이는 상당수가 만성적으로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자기존중감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선행연구(김동욱, 2001; 김혜원, 2001; 이계원, 2001; 조춘범, 2001; 김진희·김경신, 2003)들이 있었다.

③ 자기효능감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행동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인지적 관점에16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하위 변인으로 인터넷의 가용성과 인터넷 사용시간을 살펴볼 것이다.

① 인터넷의 가용성

인터넷 가용성이란, 청소년들이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인터넷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이에 중독될 가능성도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김윤희의 연구(2005)는 이러한 추론을 확인시켜주고 있지만, 류진아・김광웅의 연구(2004)는 인터넷의 가용성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②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조사했던 선행연구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혜원, 2001; 한복희, 2001; 류진아・김광웅, 2004; 이지항, 2005; 조은영, 2005; 전영자・서문영, 200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그러나 인터넷 사용시간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이숙진, 2007)도 있었다.

나. 가족체계의 독립변인

가족체계는 청소년기의 개인에게 정서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화를 이루어 가는 생활의 장으로서, 그 내부의 구성원들과 주요한 상호작용과 변화를 공유하는 체계이다. 가족체계는 특히 청소년기에 처한 개인의 행동 경향에 가장 근원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서 그 중요성은 선행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가족체계의 변인들로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등을 들 수 있다.

①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는 "청소년이 인지하는 자신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는 수준"(조은영, 2005)을 의미한다.

이 독립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 가운데, 부모의 인터넷 사용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는 연구(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김혜원, 2001; 조춘범, 2001; 강만철·오익수, 2002; 이해경, 2002)들이 있었지만, 이와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 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류진아 · 김광웅, 2004; 이숙진, 2007)를 제시한 연구들도 있어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변인의 영향력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요구된다.

②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혹은 그 대리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보이는 태도로서, 청소년의 심리적 · 행동적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egas & Seff, 1981).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하위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이승국의 연구(1998)와 최효순의 연구(2001)에서는 수용 - 거부의 차원과 자율-통제의 차원으로 나누어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춘범의 연구(2001)에서는 권위적 · 수직적 태도 - 민주적·수평적 태도의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정진태의 연구(2003)에서는 적대지향 - 애정지향의 수준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 - 거부의 차원과 자율-통제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③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청소년은 그 발달 시기의 특성 상,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간의 신뢰와 자아 형성에 대한 긍정지지를 얻어가면서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심리적 긴장을 완화해 갈 수 있다(Barnes & Farrell, 1993).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관계의 수준과 직결되는 행위 양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 자녀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찾는 경향을 보인다. 선행 연구들 가운데에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더 심하게 중독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정민희, 2003; 조아미·방희정, 2003)들도 있지만, 이들 간에 유의한 관계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류진아・김광웅, 2004)들도 있다.

다. 학교체계의 독립변인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생태학적 변인은 그들의 주요한 일상생활의 장으로서의 학교 환경이다. 학교 환경에 해당되는 주요 변인은 교사와 또래집단, 그리고 학업을 들 수 있다.

① 교사의 지지

청소년기는 '의미있는 타자'의 범위가 부모와 가족구성원을 넘어서, 교사나 또래집단 등으로 확대되어 가는 시기이다. 교사는 청소년들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이며, 청소년은 교사를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양식을 습득해 가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개연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한복희, 2001)도 있는 반면에, 인터넷 중독집단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이 비중독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이계원, 2001)도 있었다.

② 또래집단의 지지

청소년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들의 사회적 적응 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행동 양식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적 환경의 혜택 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의 친구들과 더욱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을 구성해 가는 상황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친구들과 일상적인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즉 또래집단의 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조춘범, 2001; 이해경, 2002; 류진아・

김광웅, 2004)들도 있었지만, 또래집단의 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안석, 2000; 이숙진, 2007)들도 있었다.

③ 학업성적

학업성적에 대한 청소년기의 과업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업성적을 떨어뜨린다는 통념이 있지만, 역으로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에 주목하고 있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될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결과(조춘범, 2001; 이해경, 2002; 류진아·김광웅, 2004; 이숙진, 2007)를 제시하고 있다.

라. 지역사회체계의 독립변인

지역사회는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상호의존적인 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 반드시 지리적·행정적 분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 외연이 넓어지기도 한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과외학습 환경이나 여가 및 놀이 환경 등이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지역사회체계의 영향력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교환경 밖의 과외학습활동 공간이나 놀이문화 혜택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체계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지역사회체계에 속하는 변인으로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여가공간의 활성수준을 조사한 연구(조은영, 2005)와 PC방 이용환경의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강만철·오익수, 2002; 김형준 외, 2002; 류진아·김광웅, 2004)들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후자의 세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적인 영향을 밝혔다. 이 연구는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PC방 이용환경을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측정도구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가.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와 중독의 수준은 어떠한가?

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인체계 변인(성, 연령, 자기존중감,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②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터넷 환경체계 변인(인터넷 가용성, 인터넷 사용시간)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③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가족체계 변인(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④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학교체계 변인(교사의 지지, 또래집단의 지지, 학업성적)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역사회체계 변인(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PC방 이용환경)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가. 종속변인: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영(Young, 1998)의 '온라인중독센터'에서 만든 '인터넷 중독검사'를 한국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번안·수정한 김은정 외(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의 합이 20~49점은 일반사용자, 50~79점은 중독성향자, 80점 이상은 중독장애자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2였다.

나. 독립변인

①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허쉬와 고트프레드슨(Hirschi & Gottfredson, 1990)가 사용한 척도와 김현숙(1997)이 번안하면서 청소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참고로 하여, 남현미(1999)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7이었다.

②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의 합을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6이었다.

③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쉐러 등(Sherer, et al., 1982)의 척도를 김현숙(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성취 효능감을 측정하는 8문항과 사회성 효능감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 하위변인 별로 Cronbach's α 계수는 개인성취 효능감은 .74, 사회성 효능감은 .84이었다.

④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시형 등(2000)이 개발한 척도를 조은영(2005)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통제의 수준이 높은 것을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1이었다.

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이승국(1998)이 개발한 척도를 최효순(2001)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수용-거부와 자율-통제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양육태도를 측정하였으며, 18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과 자율의 태도에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4였다.

⑥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김진희(1989)가 개발하고 오미경(1997)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이 연구자가 부·모의 구분을 없앤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태도가 수용과 자율의 태도에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9였다.

⑦ 교사의 지지와 또래집단의 지지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윤혜정(1993)이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의 지지와 또래집단의 지지에 대해 25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의 지지 또는 또래집단의 지지가 높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교사의 지지는 .81 또래집단의 지지는 .72였다.

⑧ 청소년의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청소년의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에 대한 측정도구는 조은영(2005)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각 하위요인 별로 여가활동 환경은 .78, 과외학습 환경은 .82이었다.

⑨ 기타 변인들

성별, 연령(학년급), 청소년의 학업성적, PC방 이용환경, 인터넷의 가용성, 인터넷 사용시간 등에 관한 변인들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군 단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경상북도는 10개 시와 1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는 13개 군 지역 중에서 울릉군을 제외한 12개군(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청도군, 영덕군, 울진군)의 각 군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다단계 무선층화군집표집으로 군 내 학교등급 별로 1개 학교를 표집한 후, 1개 학교에서 학년 단위로 10명 씩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7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89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설문지 57부를 제외한 622부(중학생 328명, 고등학생 294명; 남학생 318명, 여학생 304명)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였으며, 이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들이 각 지역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4.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생태체계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의 하위체계별로 이에 해당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이 때 생태체계의 하위체계에 속하는 변인 군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는데,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실시할 때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독립변인은 없었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독립변인을 찾아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종속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변인들만을 추출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자료 분석 결과

1)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

경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영(Young, 1998)의 인터넷 중독 척도를 근거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척도 점수 80점 이상으로 심각한 중독장애자로 분류되는 청소년의 비율은 10.9%이며, 척도 점수 50-79점에 해당되는 중독성향자로서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중독의 성향을 보이면서 중독장애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도 29.7%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평균값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에서 조사된 농어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의 평균값은 47.98점(표준편차 14.85)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

인터넷 중독수준	남	여	계 (%)	평균	표준편차
일반사용자 (20-49점)	177	192	369(59.3)	34.02	8.36
중독성향자 (50-79점)	102	83	185(29.7)	63.08	7.22
중독장애자 (80점 이상)	39	29	68(10.9)	82.64	2.19
계	318	304	622(100.0)	47.98	14.85

* $p < .05$, ** $p < .01$, *** $p < .001$

4)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 변인들의 영향

가. 개인체계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

개인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인 <표 2>에 의하면, 개인체계 독립변인들은 종속변인에 대해 1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인구학적 변인의

분석 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았으며, 연령(학년급)에 의한 중독 수준의 유의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심리적 변인들 가운데에는 개인성취 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회성 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인체계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β	t
성별	.14**	.09	.11**	.62*
연령(학년급)	-.09	.04	-.06	-.74
자기존중감	-.07*	.12	-.05*	-.92*
자기통제력	-.38**	.25	-.22**	-1.21***
자기효능감				
개인성취효능감	-.06	.10	-.05	-1.08
사회성효능감	-.19***	.18	-.13***	-6.02***
상수			24.03**	
F			9.08***	
Adj. R^2			.18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은 더미변수 처리 (여자=0, 남자=1)

나. 인터넷 환경체계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

<표 3>에 나타난 인터넷 환경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1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체계에 해당되는 인터넷 가용성과 인터넷 사용시간은 인터넷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즉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수록, 그리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높았다.

<표 3>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터넷 환경체계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beta\beta$	t
인터넷 가용성	.14*	.22	.17*	2.27*
인터넷 사용시간	.16***	.17	.18***	3.08***
상수			19.38***	
F			16.72***	
Adj. R^2			.14	

* p < .05, ** p < .01, *** p < .001

다. 가족체계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

<표 4>에서와 같이 가족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은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7%의 설명력을 가지며, 이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 중에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 변인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과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변인은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가족체계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β	t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34	.24	-.12	-1.28*
부모의 양육태도	-.38**	.19	-.15**	-2.07**
부모-자녀 의사소통	-.12**	.08	-.09**	-3.86*
상수		19.04**		
F		11.62**		
Adj. R2		.07		

* p < .05, ** p < .01, *** p < .001

라. 학교체계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

학교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은 <표 5>에 나타나듯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3%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 가운데, 교사의 지지와 또래집단의 지지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학업성적 변인만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인 농어촌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표 5>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학교체계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β	t
교사의 지지	.03	.13	.03	.09
또래집단의 지지	-.04	.06	-.03	-.87*
학업성적	-.31**	.21	-.19**	-2.07***
상수		24.71***		
F		7.93***		
Adj. R^2		.03		

* p < .05, ** p < .01, *** p < .001

마. 지역사회체계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

<표 6>에 나타난 지역사회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은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PC방 이용환경 변인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변인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인 농어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외학습 환경이나 여가활동의 범위가 좁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역사회체계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β	t
PC방 이용환경	.07	.16	.06	.42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09*	.08	-.06*	-.89*
상수		18.60***		
F		6.27**		
Adj. R^2		.01		

* p < .05, ** p < .01, *** p < .001

5)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의 하위 체계 및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가. 생태체계의 하위체계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종속변인인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생태체계에 해당되는 하위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가용성의 정도와 인터넷 사용시간의 길이, 그리고 남자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통제력, 사회적 효능감, 학업성적 등의 수준, 원활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과 활성화된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등의 독립변인들은 인터넷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모델 Ⅰ (개인체계)		모델 Ⅱ (인터넷환경 체계)		모델 Ⅲ (가족체계)		모델 Ⅳ (학교체계)		모델 Ⅴ (지역사회체계)	
		b	β	b	β	b	β	b	β	b	β
개인체계	성별	.14**	.11**	.11	.09	.10*	.08*	.08*	.05*	.09*	.06*
	연령(학년급)	-.09	-.06	-.07*	-.05*	-.08	-.06	-.06	-.04	-.06	-.04
	자기존중감	-.07*	-.05*	-.06	-.04	-.06	-.04	-.04	-.02	-.05	-.03
	자기통제력	-.38**	-.22***	-.19***	-.16***	-.17***	-.14***	-.16***	-.12***	-.16***	-.11***
	자기효능감										
	개인성취효능감	-.06	-.05	-.09	-.08	-.07	-.06	-.07	-.06	-.05	-.05
	사회성효능감	-.19***	-.13***	-.12***	-.09***	-.14***	-.11***	-.12***	-.09***	-.13***	-.10***
인터넷환경체계	인터넷가용성			.11*	.13*	.09**	.10**	.10**	.11**	.10**	.12**
	인터넷사용시간			.12***	.15***	.13***	.16***	.11***	.14***	.12***	.15***
가족체계	부모인터넷통제					-.22	-.07	-.19	-.05	-.18	-.05
	부모 양육태도					-.25**	-.10**	-.23**	-.09**	-.20**	-.07**
	부모자녀의사소통					-.08**	-.05**	-.08**	-.05**	-.09**	-.06**
학교체계	교사의 지지							-.02	-.02	-.03	-.02
	또래집단의 지지							.02	.01	.01	.01
	학업성적							-.12**	-.09**	-.10**	-.08**
지역사회체계	PC방이용환경									.06	.05
	과외학습여가환경									-.07*	-.05*
상수		24.03**		16.45		15.17		12.08		11.45	
F		9.08***		17.29***		14.56***		13.64***		14.20***	
Adj. R2		.18		.28		.31		.32		.33	
Adj. R2 변화량		-		.10		.03		.01		.01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은 더미변수 처리 (여자=0, 남자=1)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의 하위 체계, 즉 개인체계, 인터넷 환경체계, 가족체계, 학교체계, 지역사회체계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개인체계에 해당되는 독립변인군을 분석한 모델 I에서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인터넷 환경체계의 독립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28%로 증가하여 10%의 설명력 증가율를 보였으며, 모델 III에서는 가족체계의 독립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3%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이 31%로 나타났다. 학교체계의 독립변인군을 포함시켜 분석한 모델 IV에 의하면, 전체 설명력이 32%이며, 1%의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모델 V는 지역사회체계의 독립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설명력이 1% 더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서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의 하위체계는 개인체계이며,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는 인터넷 환경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생태체계에 속하는 개별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서 실시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생태체계 내의 9개 독립변인들을 추출한 후, 이 변인들 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독립변인은 인터넷 사용시간 변인이었다. 추출된 9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변인	b	ββ	Adj. R^2	Adj. R^2 변화량	F
인터넷 사용시간	.22***	.20***	.11	-	86.59***
자기 통제력	-.17***	-.18***	.17	.06	52.44***
사회적 효능감	-.14***	-.12***	.21	.04	49.57***
인터넷 가용성	.10**	.11**	.24	.03	22.93***
학업 성적	-.12**	-.10**	.26	.02	19.67**
부모·자녀 의사소통	-.16**	-.10**	.28	.02	18.22**
부모 양육태도	-.11**	-.09**	.29	.01	11.84**
성별	.05*	-.08*	.30	.01	9.41*
과외학습활동	-.09*	-.05*	.31	.01	4.76*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은 더미변수 처리 (여자=0, 남자=1)

<표 9>에 나타나듯이,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가용성이 높을수록,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고 거부적일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이 더 열악할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논의 및 결론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속요인들과 함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생태체계 속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립변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그 대상이 대부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었으며, 이들과 상이한 환경에 처한 농어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누락되었던 농어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해 본 것은 이 분야 연구결과의 경험적 일반화를 위한 이 연구의 이차적 목적이었다.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앞장의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첫째, 경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중에서 인터넷 중독장애자와 중독성향자를 합한 비율은 40.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척도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했던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대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계원의 연구(2001)에서 나타난 36.5%, 김혜원의 연구(2001)의 36.9%들에 비해서 더 높은 중독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농어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의 평균값은 47.98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수도권지역에 속하는 대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을 조사한 안석의 연구(2000)에서 나타난 평균값 41.33점, 오현화의 연구(2002)의 평균값 44.80점, 그리고 조유영의 연구(2008)의 평균값 47.90점들 보다 높았으며, 중소도시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전남지부・ 여수소라종합사회복지관(2002)의 조사 평균값 47.00점과 조은영의 연구(2005)에서 드러난 평균값 45.23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 비해 조사시기가 늦은 관계로 수치의 직접적 비교가 곤란하긴 하지만,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조사대상이었던 도시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이 연구의 대상인 농어촌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자 비율에서나 인터넷 중독의 평균값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인터넷 중독에 대해 1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체계 독립변인군의 영향력을 개별 변인 별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우선 농어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중독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선행 연구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중독 수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의 연령 범위가 작은 데서 기인할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이 체계의 개인심리적 변인에 해당하는 자기존중감, 자기통제력, 사회성 효능감 등의 변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의 영역이 클수록 중독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환경체계의 독립변인군은 그 체계 자체만으로 조사대상 농어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1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체계의 독립변인인 인터넷 가용성과 인터넷 사용시간은 인터넷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하여 그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지고 가상공간을 실재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몰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7%의 설명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체계의 개별 독립변인 가운데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수준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그 영향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변인인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변인의 경우,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변인이 청소년들의 행동에 개별적으로 반대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 갈 것이라는 것이 통념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일탈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 속에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변인은 그 자녀의 중독행동에 상이한 방향성의 가지고 그 영향력을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터넷 중독 경향이 심한 청소년의 경우, 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 더 심한 통제의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과성의 문제도 제기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학교체계의 독립변인군은 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독립변인들 가운데, 학업성적만이 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의 지지와 또래집단의 지지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집단의 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또래집단과 공유하는 행동문화의 지향성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 경향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그 영향력의 상쇄현상을 추론해볼 수도 있다. 또래집단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이들과 실제적 일상의 시간을 공유하느라 인터넷을 대면할 시간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현재 또래 간에 보편화된 문화양식으로서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나 놀이 등의 공유에 동참하지 않을 때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오히려 또래집단의 지지가 인터넷 이용과 중독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는 많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변인들 간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즉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업성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과적 개연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체계는 농어촌 청소년의 생활 환경을 규정하는 생태체계의 주된 하위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들의 일반화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환경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농어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단지 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사회체계의 독립변인군 가운데, PC방 이용환경 변인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변인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제시된 선행 연구의 결과(강만철・오익수, 2002; 김형준 외, 2002; 류진아·김광웅, 2004; 조은영, 2005)들과는 상이한 것이다. 농어촌 지역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외학습 기회나 여가활동의 범위가 도시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나마 이러한 환경에 보다 더 빈번하게 접근하는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PC방 이용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최근 농어촌 가정에 인터넷 설치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시설이 도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PC방 접근성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곱째, 종속변인인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생태체계에 해당되는 모든 하위 독립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가용성의 정도와 인터넷 사용시간의 길이, 그리고 남자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에, 자기통제력, 사회적 효능감, 학업성적 등의 수준, 원활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과 활성화된 과외학습 및 여가활동 환경 등의 독립변인들은 인터넷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의 하위 체계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체계 변인군,

인터넷 환경체계 변인군, 가족체계 변인군, 학교체계 변인군, 지역사회 체계 변인군 등을 순차적으로 포함시켜 분석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순차적으로 18%, 10%, 3%, 1%, 1%씩 증가하여, 전체 생태체계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33%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하위체계는 개인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선 회귀분석에서 추출된 유의한 독립변인들 중에서 인터넷 중독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생태체계에 속하는 전체 독립변인들 중에서 종속변인에 가장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변인은 인터넷 사용시간 변인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중독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생태체계는 개인체계이므로, 인터넷 사용자인 청소년 개개인이 인터넷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들이 현실과 가상을 분별하며 사유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과 실용적인 인터넷 사용지침의 제공 등과 같은 조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소비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시간의 양이 가장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드러난 만큼, 청소년 자신이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앞의 조처들을 병행하는 한편, 가족과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부모들의 양육태도나 의사소통 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터넷 문화를 이해하고 부모 자신도 인터넷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자녀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과외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놀이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역사회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

도 필요하다. 다섯째, 실제적으로 한국사회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행해져 왔으며, 이에 토대하여 마련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도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농어촌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농어촌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문제행동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만철·오익수. 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II)". 『교육심리연구』. 16(4): 247-274.

강지선. 1999. "PC통신 이용자들의 고독, 사회불안 및 대처방식과 통신중독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욱. 2001. "인터넷 이용충족, 플로우 및 개인적 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세영. 1999. "통신중독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희.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 모형구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정·이세용·오승근. 2003.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1): 125-139.

김진희. 1989. "부모-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김경신. 2003.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과 인터넷 중독,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5(1): 85-97.

김태현. 2007.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사이버 비행이 충동성 및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 1997.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형준·이상준·우정익·조항석·권혁중.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 및 중독관련 요인 분석”. 『가정의학회지』. 23(3): 334-343.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8(2): 91-117.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진아 · 김광웅.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청소년상담연구』. 12(1): 65-80.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경환. 2007.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원영. 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서울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양돈규 · 조남근. 2001. “청소년이 자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

양소남. 1997. “PC통신 이용자의 통신중독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미경. 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창규・김진희. 2009.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인터넷 전자상거래연구』. 9(1): 1-26.

오현화. 2002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재희. 1999.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옥・김민하・김승옥・김혜수. 2006. “유・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개발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석봉. 2005. “도서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중독 성향: 서해5도와 덕적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진.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승국. 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영향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지항. 2005. “인터넷 환경변인과 중재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해경. 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중독 경험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예측변인들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9(2): 165-190.

이형초・안창일. 2002. “인터넷 게임중독의 진단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211-239.

전영자·서문영. 2006.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13-25.

정민희.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태.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아미·방희정. 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249-275.

조유영. 2008.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영. 2005. “생태체계적 요인이 학교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춘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정웅. 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여수소라종합사회복지관. 2002. 『전남지역 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보고서』.

최은정・김형모. 2006.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학교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8(1): 33-50.

최효순. 2001. “초기 청소년들의 진로태도 성숙과 사회 환경 및 개인 변인과의 인과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2007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조사보고 07-06.

한복희. 2001. “인터넷 중독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125.

Barnes, G. M. & M. P. Farrell. 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119-163.

Bronfenbrenner, Urie.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uckley, W. 1967. "Systems and Entities". *In W. Buckley (ed.). Sociology and Modern Systems Theory.* NJ: Prentice-Hall. pp. 42-66.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Freeman Press.

Gegas, V. & M. Seff. 1981. "Families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1980s". *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4): 941-958.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Hirschi, T. & M. R. Gottfredson.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Louge, A. W. 1995. *Self-Control: Waiting Until Tomorrow for What You Want Today.* NJ: Prentice Hall.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erer, M, J.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 B. Jacobs. 1982. "The Self Esteem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663-671.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bavior.* 1(3): 237-249.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김광수는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은 "청소년기의 자살인지양식에 대한 환경요인의 영향"(2005), "정신장애인의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제한성, 선택제한성, 이용불만이 소비자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2009) 등이 있으며, 저서로 『한국 청소년의 사회심리와 일탈행위』(2007) 등이 있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사회정책, 정치사회학, 사회계층 분야이다.

[2009. 6. 10. 접수; 2009. 8. 2. 채택]